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삼성전자 ESG 위기①]탄소배출 애플 '2배'...2030년 제품경쟁력 상실 가능성 *블로터*
- 친환경차 수출 10만대 넘어선 현대차-기아...작년보다 47%↑ *연합뉴스*
- 동원시스템즈, 한국콜마와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 개발 *뉴스시*
- 美가 '법인세' 들었다면, 英은 '기후 리스크' 공시 꺼냈다 *머니투데이*
- 금융위 "탄소중립, 전세계 금융권 협력 필수" *그린포스트코리아*
- [탄소중립 기획특집④ - 아모레퍼시픽] "이상 기후 변화에 민첩히 대응" *뉴스위치*
- 삼성생명, 2030년 ESG 3대 전략 '녹색-상생-투명금융' *파이낸셜뉴스*
- 친환경 탈을 쓴 기업... '그린워싱'에 속지 마세요 *조선일보*
- "석탄 관련 사업 이제 안해요"...지구 생각하는 건설사들 *쿠키뉴스*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연합뉴스*
- GS리테일·GS홈쇼핑 합병 승인... '매출 10조' 유통공룡에 '성큼' *이투데이*
- [4대 그룹 이사회 분석] 4대 그룹, '여성 전문가' 모시기 열중 *한국금융신문*
- 2.5일에 한 개꼴... 올 5개월간 기업 61곳 'ESG 위원회' 신설 *서울신문*
- 남양유업 인수한 PEF... 남은 과제는 'ESG' *뉴스토마토*
- 롯데렌탈 IPO로 호텔롯데 상장까지...지주사 체제 대전환 예고한 롯데 *조선비즈*
- CJ 이경후·이선호 남매, '올리브영' 지렛대로 승계 작업 가속 *주간동아*
- 하이브, 4455억 유상증자 성공 *한국경제*
- 바이오社 주주 친화 행보 잇따라...주주 반응은? *이데일리*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국민 10명 중 6명 "ESG가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이데일리*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원 극단 선택에 "투명한 조사 받을 것" *시사저널*
- 고려아연서 근로자 2명 숨져...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한국일보*
- 네이버·카카오 조직문화 '빨간불'... "치열한 경쟁-평가원칙 부재가 초래" *뉴스시*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일부 인정 받아 *비즈니스포스트*
- 택배노조 교섭 요구 거부한 CJ대한통운에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연합뉴스*
- 또 지게차 사고...삼성 반도체 공장 현장 1명 사망 *KBS*
- '흑자전환' 갈 길 먼데...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등 잇단 악재로 '골머리' *더퍼블릭*
- SK이노, 삼성SDI, LG화학...ESG 경영 사회 부문 '우수' *핀포인트뉴스*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공식화... "석탄발전소 투자 안한다" *JTBC*
- 산은, 녹색신산업에 5년간 14조...국민연금, 운영사 선정 ESG 반영 *뉴스1*
- ESG 국제 표준기준 마련 속도낸다...내년 상반기 나오나 *이데일리*
- P4G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채택... "탈석탄 가속화-기업 ESG 강화" *파이낸셜뉴스*
- 'ESG 금융' 속도 내는 국내 은행들...녹색상품 쏟아낸다 *경향비즈*
- '한국의 블랙록' 선언한 금융투자업계, ESG 실적 낮은 기업 거들떠도 안 본다 *인사이트코리아*
- 초대형 IB, 단계별 ESG 조직 마련 *팩스넷뉴스*
- 스타트업도 'ESG 경영' 속도낸다 *서울경제*
- 블라인드 가입자가 우리 회사 ESG도 점수 매긴다 *중앙일보*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골드만삭스 사례를 통해 바라본 금융투자회사의 ESG 경영

- 자본시장연구원 21.05.31

E

-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으로 알려진 블랙록과 더불어 골드만삭스 또한 금융회사 중에서 ESG 경영 도입에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받음. 골드만삭스는 ESG 용어가 처음 사용된 UN Global Compact의 2005년 보고서 'Who Cares Wins' 내 주요 분석을 담당했고 이를 계기로 ESG 요소를 기업 분석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GS Sustain으로 발전시킴
- 골드만삭스의 ESG 경영은 2005년 정립한 '환경 정책 프레임워크' 라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원칙 핵심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재무적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등 모든 리스크와 동일한 비중과 규율로 취급하고 사업 판단에 반영한다는 것임. 만약 리스크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1) "당사의 허용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2) "당사의 정책 및 지침과 충돌하는 경우" 로 해당 사업을 거부함
-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스튜어디스 코드는 운용 자산내 투자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에 1명의 여성도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투자은행 사업 부문의 경우 고객 기업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없으면 IPO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ESG에 대한 스튜어디스 코드 및 IPO 기준은 해외 금융회사 중에서도 매우 강도 높은 편에 속함
- 원칙에 기반한 ESG 경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는 여러 전담 조직 및 기구를 마련하고 있음. 우선 이사회 내에 ESG 이슈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 4개 주요 사업 부문에 각각 지속가능성 협의회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성 협의회는 고위 임원(seniorpartner)이 담당하여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2019년에는 전사 차원의 ESG 관련 사항들을 조율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ESG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담당으로 임명함

ESG 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자본시장연구원 21.05.31

S

- ESG채권의 발행 급증은 최근 국내 채권시장의 주요 화두임. 2018년에 2건, 6,000억원의 ESG채권이 발행된 이후 발행이 급증하여 2019년에는 26.7조원, 2020년에는 공기업과 더불어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으로 발행기관이 확대되어 54.1조원 발행을 기록함. 이러한 추세는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4월말 ESG채권 발행은 29.2조원을 나타내고 있음
- 발행규모가 확대된 반면 국내 ESG채권은 특정 부문에 높은 편중 현상을 보임. 기존 신용채권시장에서 높은 발행 비중을 차지했던 공기업이 특수채에 ESG인증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며 사회적 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약 83%). 대부분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ESG 채권은 기존의 고유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ESG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투자 제고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반면 민간부문의 ESG 채권은 지속가능채권(41.7%)와 녹색 채권(38.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발행 프리미엄을 보면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양(+)의 스프레드를 나타낸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음(-)의 스프레드를 나타냄.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기존 발행 구조에 ESG인증을 추가하여 발행한 채권에 비해 기업이 발행한 신규 투자와 관련한 녹색 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수요 예측 경쟁률과 스프레드 간의 점도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ESG채권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분산도 높게 나타남. 따라서 현 시점에서 ESG채권에 유의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ESG채권 가격은 시장상황, 투자자 수요 및 시장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 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1.06.02

G

-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가 주목받고 있음. SIB는 민간기관이 민간자금으로 공공 사업을 운영,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기관인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민간기관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투자자 재무적 수익 달성, 정부 예산 절감이 실현되도록 설계됨. 특정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을 이용하고, 성과급 제도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 정부는 SIB를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한 파 일럿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시의 예산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 개발된 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SIB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새로운 임팩트 투자 모델로 관심이 확대됨.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경제선지능 아동의 지능지수 및 사회성 향상을 성과 목표로 SIB를 진행함. 지능검사와 사회성 평가 지표의 개선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함. 사업 수행 결과, 대상 아동의 52.7%의 지표가 개선되어 최대 성과 목표를 달성함
- 미국의 SIB 생태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영국의 SIB 생태계와 달리, 민간 금융사, 자선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기관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국내처럼 민간 전문 중개기관 Pool이 부족한 경우에는 SIB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개기관으로서 정부 참여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참여 기관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형 SIB와 민간 주도형 SIB가 공존하도록 시장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상기관으로 정부만 있을 경우 SIB 규모는 결국 정부의 예산안 규모에 머물게 될 수 있음. 또한 SIB 관련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기때문에 SIB 설계 및 결과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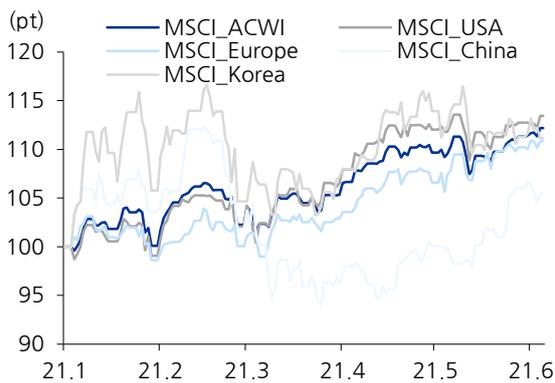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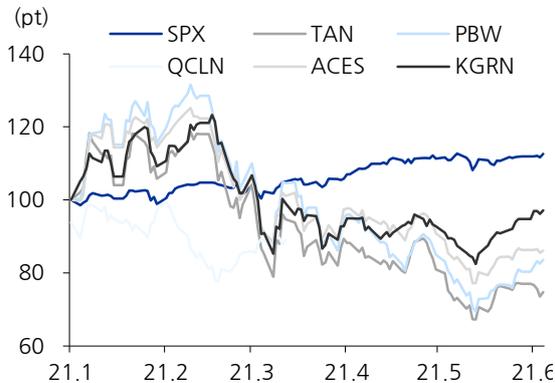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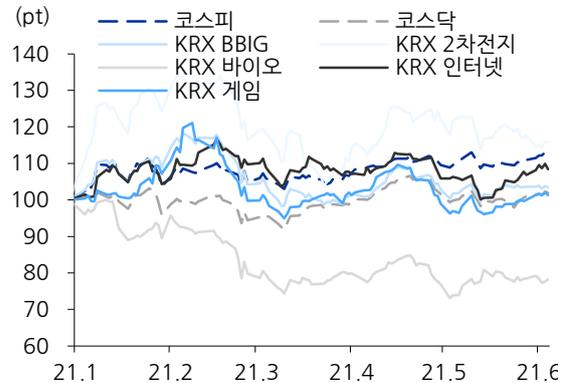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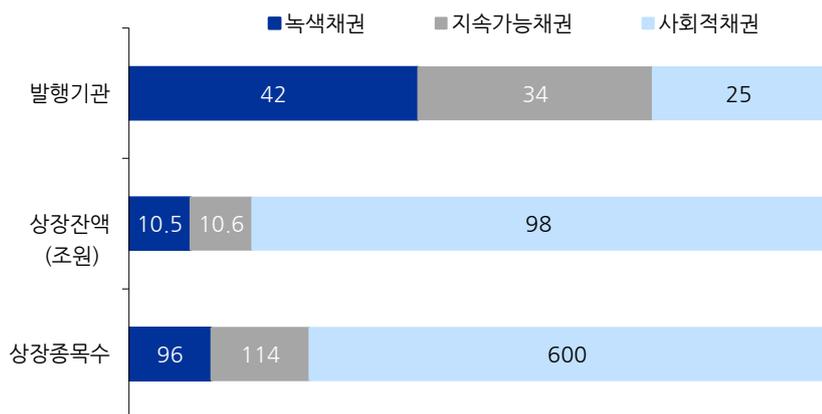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 채권종류 | 종목명 | 상장일 | 표면이자율 | 상장잔액 (백만) |
|--------|--|------------|---------|-----------|
| 녹색채권 | 한국투자증권 20(녹) | 2021/06/04 | 1.62800 | 150,000 |
| 지속가능채권 | 대구은행 조건부자본증권(상)(후) 4206 이 120A02(지) | 2021/06/03 | 2.98000 | 100,000 |
| 녹색채권 | 에스지씨에너지 8-1(녹) | 2021/06/02 | 2.18200 | 29,000 |
| 사회적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29(사) | 2021/06/02 | 1.89700 | 19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1)(사) | 2021/05/31 | 0.77000 | 160,3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2)(사) | 2021/05/31 | 1.03900 | 18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3)(사) | 2021/05/31 | 1.30600 | 23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4)(사) | 2021/05/31 | 1.91200 | 51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5)(사) | 2021/05/31 | 2.23200 | 26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6)(사) | 2021/05/31 | 2.47400 | 20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7)(사) | 2021/05/31 | 2.56400 | 12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8)(사) | 2021/05/31 | 2.57100 | 30,000 |
| 사회적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2(1-9)(사) | 2021/05/31 | 2.54300 | 10,000 |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 | |
|------------------|----------------------------|-----|
| · STRONG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0% |
| · BUY(매수)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 93% |
| · HOLD(중립)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 7% |
| · REDUCE(매도) |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 0% |

(2021.03.31 기준)